

보도시점: 2026. 6. 17.(수) 배포 즉시 / 배포: 2026. 6. 17.(수)

## 새만금에서 해양무인이동체 실증 '본격화'

-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해양무인이동체 해상시험장 조성 지원

□ 새만금개발청(청장 문성요)은 새만금 호 내 해양무인이동체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상시험장 내 부이\*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실증사업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추진하며 2027년까지 총 214억원(해수부 150억, 전북도·군산시 50억, 민간 14억)이 투입되어, 새만금 해역에서 각종 계측·항행 안전용 부이를 설치하고 해상 실증시험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.

\* 배가 항만에 정박할 때에, 닻을 내리는 대신에 닻의 사슬을 매어 두어 배를 붙들어 맬 수 있게 설치한 부표(浮標)

【해상시험장 개념도와 위치】



○ 바다를 누비는 드론인 해양무인이동체는 자율운항, 원격제어, 해양 관측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미래 해양산업의 핵심 분야로, 최근 해양안전, 국방, 물류, 환경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.

### 【해양무인시스템과 통합관제시스템】



무인잠수정(ROV, AUV, 보행로봇)



무인수상정(아라곤)



무인수상정(해검)



- 새만금 해역은 넓은 수역과 우수한 접근성, 다양한 해양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어 해양 신기술 실증에 적합한 입지로 평가받고 있으며, 이번 허가를 통해 관련 연구와 산업 활성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.

### 【새만금 내해시험장의 미래】



-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“이번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승인은 미래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실증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의 일환”이라며, “새만금을 첨단 해양산업과 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개발전략국 신산업전략과	책임자	과 장	김현주	(063-733-1360)
		담당자	사무관	김성진	(063-733-1369)

